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11월 26일 (넷째 주일/성례주일)

성경본문 : 고린도전서 11장 23-29절

설교제목 : “주의 만찬”

오늘은 성례주일을 통해서 주의 만찬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보통 주일 오후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주의 만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식사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입니다. 초대교회는 식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식사가 같은 신학적 중요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식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는 대개 부유한 가정에서 모임장소를 제공하고,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음식을 대신 마련해서 많은 음식을 차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가난한 성도들은 일용노동자들이나, 노예계급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주일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부랴부랴 주일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일과를 마치면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고, 또 별도로 음식을 준비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 먼저 참여한 부요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다리지 못하고, 가져온 음식을 다 먹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들이 도착할 때쯤에는 이들이 먹을 음식이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부자와 가난한 자의 과당이 생겨나고,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러한 식사 문제가 있었지만, 초대 교회에서 식탁교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 기회가 되면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과도 어울려 식사를 하는 것을 즐거하셨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별명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마11:19)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사람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걸 실천하셨을까요? 예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특히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소외된 사람들과 자주 식사 교제를 나눈 것은, 이사야서 24장과 25장에 나오는 메시아적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25:6의 예언이 중요합니다. 사25:6에 보면,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이 산 즉 시온(예루살렘)으로 초청하셔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즉 가장 좋은 살코기와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와 여러 가지 풍성한 야채와 과일, 그리고 각종 산해진미로 사람들을 대접하시고 배불리 먹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이사야서 25:6에는 종말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때 메시아적 잔치가 풍성하게 열릴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식사 교제는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했던 종말론적인 구원의 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신학적 상징 행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식사교제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성취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초대교회의 식사는 하나님 나라의 ‘성례전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성례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서 행한 식사 혹은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성례전적인 의미를 띠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고대 지중해 세계의 잔치는 풍성함과 흥겨움을 특징으로 합니다. 잔치가 열리면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흥이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예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혹은 잔치에 참여하면서, 역사의 종말에 성취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실재가 풍성함과 흥겨움으로 가득 찬 잔치라는 것을 예시하셨던 것입니다.

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3:28~29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미래에 완성될 천국의 모습을 구원받은 인류 전체가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 하나님의 잔치 석상에 참여하여 친교를 나누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을 소망하는 지상의 공동체는 주님이 오셔서 성취하실 참된 잔치를 바라보면서 함께 식탁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탁교제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례전입니다. 식탁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충만한 신적인 삶에 참여합니다. 풍성한 삶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서로 섬기며, 죽음과 질병을 모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역사의 종말에 선물로 주어질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상황, 곧 풍성하고 흥겨운 모습을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서 식사 혹은 잔치라고 하는 상징을 즐겨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와 함께 성찬이 거행됩니다. 그러면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식사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게 된 것이 모두가 예수님의 희생적 제사드림을 통해 이루진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념하는 것입니다.(고전11:23-25)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기념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작은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작은 잔을 나눔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참여케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매주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행하는 것처럼 1년에 한두 차례 행하는 특별한 예식이 아니라, 매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와 결부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 때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은 예배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신자 상호간에 깊은 친교를 나눴습니다. 그 친교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형성되고 결속된 참된 사귄이었습니다. 따라서 초기 교회의 식사와 성찬에는 기쁨과 활력이 가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성만찬은 최종적으로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주적 잔치를 벌여지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배불리 먹이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개최될 우주적 만찬을 기대케 하는 축제이자 잔치인 것입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주의 만찬(식탁교제)의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과 식탁교제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초대교회의 식탁교제가 성례전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4) 식사와 함께 성찬이 거행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한 주간 구역원들과 함께 좋은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십시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